

# 통일에 대한 인식: 세대간 차이

임 에 덕\*

## — 목 차 —

- I. 서 론
- II. 본 론
- III. 결론 및 제언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북한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반공교육이 이제는 통일교육이란 용어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식도 시대마다 달랐다. 통일대비교육은 한반도 분단을 보는 관점에 따라, 통일의 의미에 따라, 그리고 교육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즉 북한 및 공산주의와 관련된 통일교육은 여러 명칭으로 불리어 왔다. 방공교육,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국방안보교육, 이데올로기교육, 이념교육, 안보교육 등이 그것이다.

2003년 여름 3차 북한 돕기 운동 제주 본부 방북단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느끼는 바는 세대별로 크게 달랐다. 그 한가지 예로 단군 왕검릉에 대한 태도이다. 단군왕검이라 하면 실존적 인물로 인식되기보다는 신화로 역사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단군 왕검릉을 보고 나서 우리가 받은 놀라움의 정도는 세대간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요즘 탈북자나 조선족이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우리 자녀들과 같은 교실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 그 대상을 흠모하는 것을 보기도

\* 사회복지법인 에서원 이사장, 산업정보대학 복지행정 겸임교수

한다. 그런 자녀들이 뿔이 달린 사람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자라던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중학교에 전학을 온 탈북 여중생을 흠모하는 손자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태도에 대한 손자의 인식은 얼마나 다를까? 이와 같은 현상은 통일을 대비하는 남북한 모두가 세대간 인식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연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아동기에 인지능력이 발달되면서 직접적 간접적 경험이 내면화되면서 가치관이 형성되고(이인정 외 : 2004)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가치관은 변화를 겪기보다는 오히려 변화를 거부한다. 이런 인간의 성장발달과정의 특징을 고려해볼 때,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교육을 받는 내용은 우리의 외적 내적 사건과 사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경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틀이 된다. 따라서 통일과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도 의무교육을 통한 우리의 인식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분단 이후 7차에 걸친 교육과정변천을 통해 저마다 교육 받은 내용에 따라 우리는 다른 인식의 틀을 가지고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내 주민들의 통일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의 차는 이데올로기 교육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것을 연구의 가설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보았다.

## 2. 연구의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제주도내 주민들의 통일과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통일에 대한 태도는 세대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통일에 대한 걸림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세대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북한주민에 대한 거리감은 세대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 및 한계점

본 연구의 조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채택하였다. 조사대상은 비확률 단순 무작위 표출방법을 이용하였고, 설문조사

는 자기 기입식 배포방법을 사용하고 현장에서 회수하였다. 설문지 배포는 2004년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 동안 이루어졌고 질문지 120부를 배포하여 120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100%이고, 이 중 무성의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112부가 통계 처리 되었다.

설문지에 응답한 조사자료의 통계처리는 excel을 사용하여 단순 빈도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제주지역에 살고 있는 112명을 단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일반화가 힘들 수도 있다. 둘째로 사용된 설문지는 표준화된 검사지가 아니라 연구자가 가설에 맞추어 단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세대간 인식차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 II. 본 론

### 1. 이론적 배경

먼저 통일의 개념을 지리적, 정치적 개념과 사회적, 문화적 개념으로 나누어 생각할 때 내면적 통일과 외면적 통일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원하는 통일의 개념은 남북한간의 외형을 하나로 하는 외형상의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간이 같은 민족으로서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이 전제되어야한다.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민족 발전이 되어야 한다(함동섭, 2001 : 4).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은 분단된 민족사회를 하나의 민족사회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리된 민족이 단일하고 궁극적이며 권위적인 정치권력의 원천 밑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보다 큰 단위를 형성하고자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은 자기혁신을 요구하고 이 요구는 미래지향적, 역사 창조적 민족작업으로 응답되어야 한다(함동섭, 2001: 5).

따라서 우리 민족 운명공동체의 책임으로서 통일이념은 통일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전득주, 1985. 함동섭, 2001: 5).

통일교육의 개념은 반공교육, 승공교육, 정치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공산주의비판교육, 통일안보교육, 국민정신교육 등 그 표현양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표시되어 왔다(도홍렬, 1985 : 함동섭, 2001 : 5)

함동섭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과과정은 교수요목기와 반공교육<sup>1)</sup>, 제1차 교육과정기와 멸공교육, 제2차 교육과정기와 승공교육, 제3차 교육과정기와 반공교육, 제4차 교육과정기와 평화통일교육, 제5차 교육과정기와 통일안보교육, 제6차 교육과정기와 통일교육, 제7차 교육과정기와 통일교육을 과정별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1, 2, 3, 4차 교육기는 반공교육기, 5차는 통일안보교육기, 6, 7차는 통일교육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반공교육기는 1948년 정부수립후 - 1980년대 중반으로 구분된다. 정부수립 후 6·25직전에는 반공교육이 소극적, 방어적인 입장이지만, 6·25이후에는 멸공과 북진통일 등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70년대 초에 남북한의 대화가 시작되어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 7·4 남북 공동성명 등이 발표되면서 통일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인식으로, 통일교육은 반공·안보 중심 교육에서 분단체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통일의식과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심어주는 교육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등 능동적인 변화를 한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침용 땅굴을 파는 등 대남전략을 양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노출되면서 반공과 대북 이념무장이 중요한 통일교육으로 계속되었다. 결국 반공교육기에는 통일보다는 안보를 강조하였으며, 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여기고,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통일교육이 주로 이루어 졌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국제환경의 이념대립 구조, 북한의 공세적 대남 전략 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남한체제 유지에 기여했다.

통일안보교육기는 1980년대 중반 - 1990년대 초반으로 분류된다. 적대적 인식과 한민족이라는 인식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이 기간에는 북한을 합쳐야 할 긍정적인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경계심도 아울러 가져야 하는 이중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 제5차 도덕과의 통일교육에 해

1)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1945년 미군정 하에서 제정된 교수요목에서 출발하였으며, 도덕과 교육은 일제시대의 수신과가 폐지되고 공민과가 통합되어 처음 나타났다. 미군정기에는 민족주의 계열의 지도자들이 민족의 자주독립을 주장하면서 교육에서 자주독립정신을 강조하였다. 미군정하의 교수요목기에 반공 이데올로기는 공식적 정책이 아니었고 6·25이전까지는 반공이 아니라 단순히 말고 경계하자는 입장에서 방공이었다가 6·25이후 멸공과 북진통일로 표면화된다.

당되는 통일·안보생활에서는 반공감정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종래의 교육방향을 전환하여 북한의 실상과 공산주의 이론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특히 공산주의 및 북한 실상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알도록 하여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지도의 목표를 둔다(문교부, 1988 : 194. 합동섭, 2001 : 24)

통일안보교육이란 결국 모든 이념이나 북한 실상교육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낙관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하고 그들이 통일에 대하여 진지한 합리적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되 우리의 국체, 생존 그리고 통일의 위협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을 뜻한다(한국교육개발원, 1988 : 17. 합동섭, 2001 : 26)

통일교육기는 1990년대 초반-현재로 분류된다. 이 시기에 1991년 불가침 합의서, 7·7 선언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 남북한 기본합의서 체결,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붕괴와 변혁, 독일의 통일, 한·중 수교, 북한의 체제경직화 및 고립화, 남한체제의 경제력 향상과 정치적 민주화 및 통일정책 추진 자신감,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등 다양한 정세변화가 반공보다는 통일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일교육은 단순히 남북통일정책이나 북한의 실상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도 병행해야 하는 등 그 과제나 범위 면에서 더욱 확대·심화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sup>2)</sup>이 제정되었고 제 4차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1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가 마련되었다. 이 지침서에 따르면 다양한 교육방향이 제시되고 있고 통일시물레이션이나 사이버공간에서의 통일에의 자유로운 논의 등이 제시되고 있다.

## 2)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2.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각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일 99·8·6]]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일교육은 주변정세의 변화, 그리고 교육 이념의 변화와 함께 변천해 왔다. 반공교육 혹은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은 정권의 변화, 교육과정의 개정과 더불어 세대간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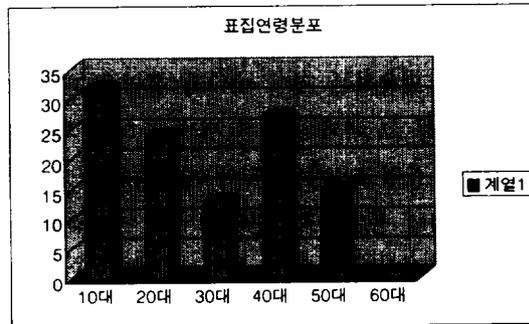
## 2. 통일에 대한 인식: 세대간 차이

### 1)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인구적 특성을 보면 112명의 응답자중 남자가 46명, 여자가 66명 표집되어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많이 표집되었다. 연령기준으로는 10대 32명, 20대 24명, 30대 13명, 40대 27명, 50대 15명, 60대 1명이 표집되어 10대와 40대가 좀 높게 표집되었다.

〈표 2-1〉 응답자의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자	46
	여자	66
연령	10대	32
	20대	24
	30대	13
	40대	27
	50대	15
	60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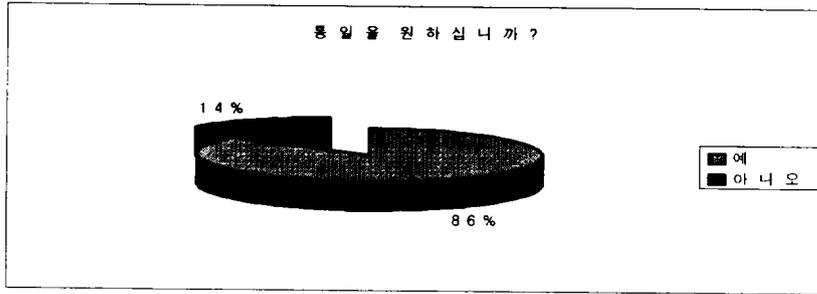


〈그림 2-1〉 연령분포

### 2) 통일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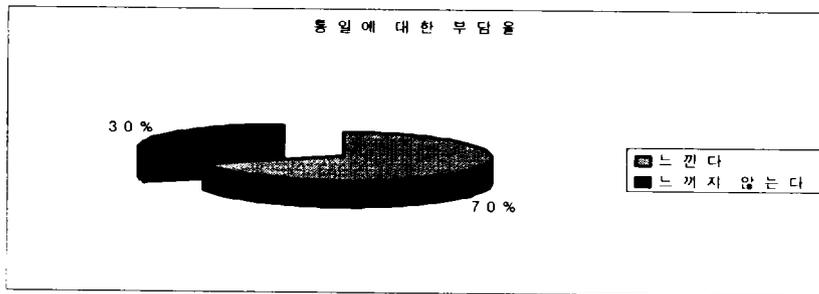
통일에 정치 지리적 통일인지 사회 문화적 통일인지에 대한 구체적 물음이 아니라 전반적 통일에 대한 욕구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세대간 큰 차이 없이 대다수가 통일을 원하고 있다. 김홍선의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의 통일의식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들이 생각하는 통일 형태로 '남북이 정치적·경제

적·사회적·문화적으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상태'라고 응답한 비율이 49.3%, '남북이 현 상태에서 자유왕래가 이루어지는 상태'(37.6%), '남북이 정치적·지리적으로 한 국가가 되는 상태'(11.4%), 기타(1.6%)로 응답(김홍선,2002:58-59)하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통일의 개념이 민족통일을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통일에 대한 부담감

세대간 별 차이 없이 한편 통일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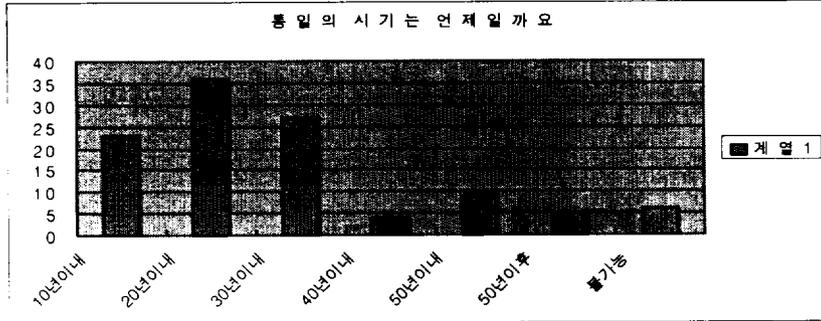


〈그림 2-2〉 통일부담

### 4) 기대되는 통일 시기

통일을 기대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세대간 큰 차이 없이 20년 이내와 30년 이내라고 다수가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세대간 차이도 별로 없이 대부분의 응답

자가 통일의 시기를 빠르게 기대하고 있고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적었다.



〈그림 2-3〉 기대되는 통일시기

김홍선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들의 통일의식 조사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통일은 언제쯤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 성별,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20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65.1%이며, 10년 이내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23.5%였다(김홍선, 2002 : 66). 본 연구에서는 김홍선의 연구와는 달리 변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50년 이후, 불가능이라는 시기를 더 길게 한 변수를 두었고 김홍선의 연구에서는 5년, 10년, 15년, 20년, 20년 이상이라는 짧은 시기의 변수를 두었던 것이 좀 달랐지만 2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다는 공통된 결과가 나왔다.

## 5) 거리감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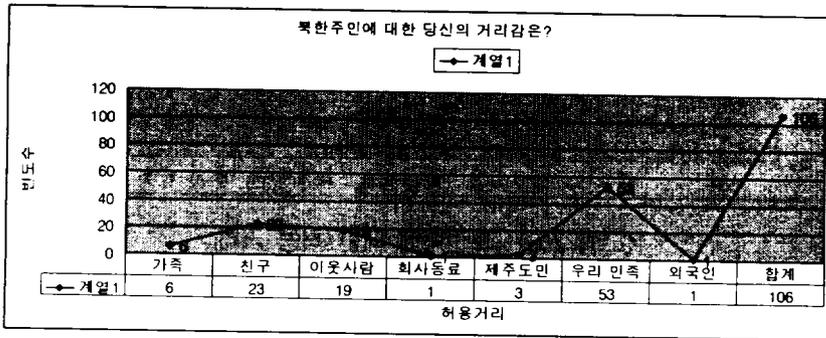
보가더스의 거리감 척도(Borgadus social distance scale)를 활용하여 제주도 주민들이 세대간 느끼는 북한주민, 탈북자, 조선족, 그리고 일본에 사는 조총련계 동포에 대한 거리감을 조사하였다.

### (1) 북한주민에 대한 허용 거리

우선 북한 주민에 대해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에 대해 106명

이 응답했는데 53명이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인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친구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두 번째로 많이 응답했고 세 번째로 이웃이나 가족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으로 응답한 경우는 1명밖에 없다.

북한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보면 다수가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이고 외국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친구나 이웃사람으로서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으로서도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림 2-4〉 북한주민에 대한 허용 거리

(2) 탈북자에 대한 허용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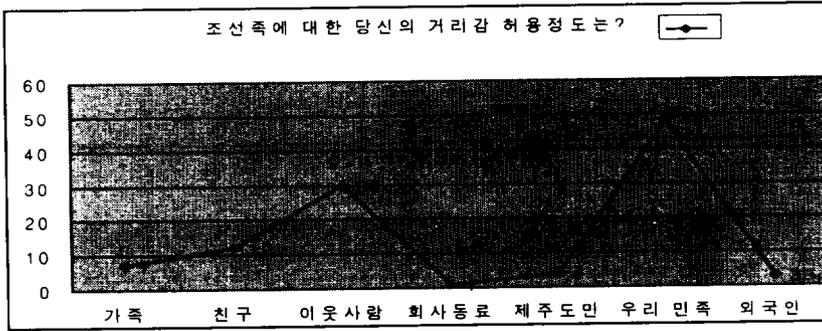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 허용정도에 대해서도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인다가 가장 많은 응답자수를 보여준다. 그러나 북한주민보다 이웃사람으로 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다.



〈그림 2-5〉 탈북자에 대한 허용 거리

(3) 조선족에 대한 허용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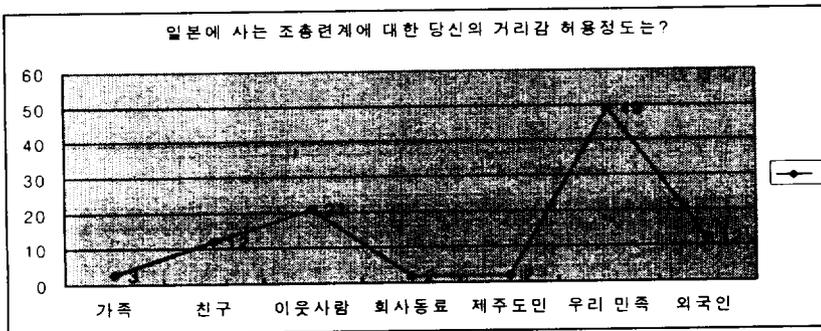
조선족에 대한 거리감 역시 우리 민족으로서 받아들인다고 이웃사람으로서도 받아들인다.



〈그림 2-6〉 조선족에 대한 허용 거리

(4) 조총련계 동포에 대한 허용 거리

일본에 사는 조총련계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인다고 가장 많고 외국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응답자가 다른 경우보다 더 많이 있어서 일본에 사는 조총련계 동포에 대한 거리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7〉 조총련계 동포에 대한 허용 거리

우리가 나아가는 통일이 민족통일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일본에 사는 조총련계 동포들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재조정해야할 것이라고 사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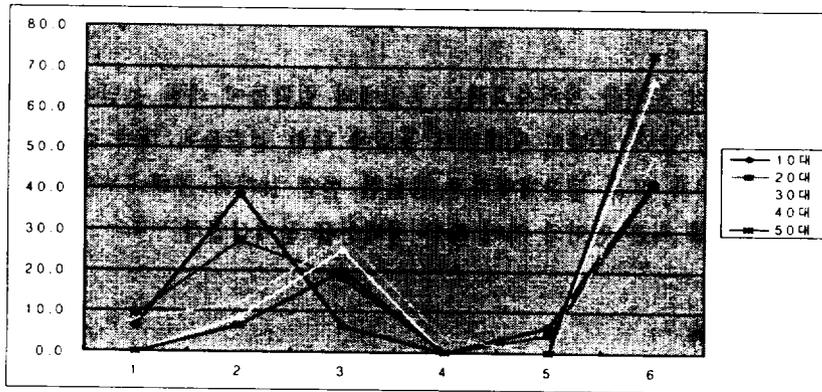
(5) 북한주민에 대한 허용거리의 세대간 차이

다음의 표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주민에 대한 제주도민의 거리감은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거의 모두 우리 민족 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10대와 20대의 응답자들은 다수가 친구나 가족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여 세대간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 2-2〉 북한주민에 대한 허용거리의 세대간 차이

연령대	가족	친구	이웃사람	회사동료	제주도민	우리민족	계(%)
10대	6.5	38.7	6.5	0.0	6.5	41.9	100%
20대	9.1	27.3	18.2	0.0	4.5	40.9	100%
30대	0.0	8.3	25.0	0.0	0.0	66.7	100%
40대	8.0	12.0	28.0	4.0	0.0	48.0	100%
50대	0.0	6.7	20.0	0.0	0.0	73.3	100%

북한주민에 대한 허용거리의 세대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세대별 응답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상대적 비율을 가지고 비교하였다. 그리고 〈그림 2-8〉에서처럼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명이 있어서 세대간 차이를 비교할 때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2-8〉 북한주민에 대한 허용거리의 세대간 차이

위 그래프에서 1은 가족, 2는 친구, 3은 이웃사람, 4는 회사동료, 5는 제주도민, 6은 우리민족으로 거리감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래프에서 제시된 것처럼

럼 10대와 20대에서 가장 많이 허용하는 거리감은 우리 민족이나 별 큰 차이 없이 두 번째로 친구로서도 비슷한 비율로 거리감을 허용한다.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에서 가장 많이 허용하는 거리감은 우리민족으로서 가장 큰 거리감을 허용하지만 둘째로는 이웃사람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세대 가운데서 30대나 50대에서는 가족으로 북한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힘든 것으로 나타난다.

위 그래프와 같이 세대간 보여주는 유사한 경향의 차이는 반공이나 통일 이데올로기의 교육차이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이 조사결과는 비확률 단순 무작위 표집으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에 이에 대해 더 많은 연구조사가 있어야할 것으로 사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0대와 20대는 1990년대 초반기 이후 실시되어온 통일 교육을 받은 세대로 설명될 수 있고 30대는 통일안보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오히려 40대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50대와 같은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 6) 통일에 대한 걸림들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통일에 대한 걸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들이라고 대다수가 응답한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통일에의 걸림들에 대한 응답에는 세대간 차이가 많이 났다. 40대와 50대에서 통일에 대한 걸림들에 대해 이념적 문제나 사상적 문제 혹은 북한체제라고 응답한 반면 10대와 20대에서는 문화적 차이와 생활문화 혹은 언어의 차이 혹은 정체성을 문제삼았다.

## 7) 연구결과

본 연구는 통일과 북한주민에 대한 세대간의 인식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 1) 통일에 대한 태도는 세대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 통일에 대한 걸림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세대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3) 북한주민에 대한 거리감은 세대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세 가지 가설들을 가지고 설문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단순빈도분석을 해 보았다. 그 결과 통일에 대한 세대간의 차이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의 걸림돌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북한주민에 대한 거리감에는 세대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서론과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되었듯이 인지능력이 개발되고 형성되는 시기에 7차 교육과정에 걸쳐 다른 시각에서 북한과 주민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북한주민에 대한 거리감과 그리고 통일걸림돌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를 형성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위에서 논의되었듯이 세대간의 통일에 대한 인식차이는 결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 혹은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와 통일교육을 받는 세대간의 인식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통일교육으로 재교육 받아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을 받은 10대와 20대들의 응답에서 보여주듯 역사적 정체성과 언어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와 방안들이 각계분야에서 이뤄져야함을 시사한다. 특히 조총련계 동포들에 대해 외국인으로 받아들인다는 허용거리감은 민족 통일을 지향하고 있을 때, 통일교육시 해외에 사는 민족들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남북통일이 관념적인 수준에서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대중매체와 사이버공간에서의 교육, 그리고 사회단체들을 통한 교육 등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10대 20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이질성에 대한 지적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대비를 위해 각계 각 분야에서 공동연구 해야 할 과제를 암시하고 있다.

이는 남북통일 이후 발생될 사회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체제의 객관적 인식과 민주시민의식의 배양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통일대비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강구용(2000).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일대비 초등학교 교사들의 통일교육의식조사」
- 김영석(2002). 나남출판사, 『사회복지조사방법론 SPSS WIN 통계분석』
- 김홍선(200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남북정상회담이후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의 통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 서진수(2001).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의 통일정책 인식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인구 및 사회경제적 속성 차이를 중심으로
- 이인정의(2004). 나남출판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채구묵(2001). 양서원,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함동섭(2001).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교사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연구」

<Abstract>

## **Generation Gap: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and North Korean people**

Im Ae Duck

This survey was intended to see if there is any generation gap in South-Korean people's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and North-Korean People. Randomly selected 112 people just in Jeju were answered. The survey result is as following.

At firs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young and old in attitudes toward Unification. Most respondents of all the generations agree to economical factor as the major burden and obstacle for Unification.

Second,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young and old in attitudes toward North-Korean People by Borgadus social distance scale. This difference can be explained by means of various steps of educational models toward North Korea implemented by Korean government according to international and 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s.

Third,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young and old in the attitudes toward barriers which they think get in the way of Unification. Young generations including the 10s and the 20s think cultural and linguistic difference will get in the way for 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while old generations think political and ideological differences will stand in the way.

This research result points out that all the people including young and old should be re-educated again for national unification through regular educational or social educational system or cyber space or mass media.